



“서광로가 테스트베드냐”… 설익은 BRT 질타

<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>

제주도의회 “BRT 잣은 개선 공사 등으로 혼란 야기”
도, BRT 동광로 확대 추진… “주민 참여 기구도 구성”

설계 미흡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
사고 위험 탓에 개선 공사를 반복
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
에 대한 비판이 도의회에서 잇따라
나왔다.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
그동안 보류한 BRT 확대 계획을
올해 6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.

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
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
서 김상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
“오는 6월 동광로에도 BRT를 도입
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
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BRT의 핵심
은 지하철처럼 양방향으로 운행하는
양문형버스가 도로 한 가운데
조성된 섬식정류장에서 승객을 승
하차하는 것으로, 지난 5월 서광로
3.1km 구간(신제주 입구 교차로~광

양사거리)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. 또 양문형버스는 BRT 구간에
선 버스 전용 중앙차로로 운행한다.

제주도는 그해 10월부터 동광로
2.1km 구간(국립박물관~인제사거
리~광양사거리)에도 BRT를 도입
한 뒤 도령로(2.1km)와 노령로
(3.3km)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
만 최초 개통한 서광로 구간에서
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
고, 사고 위험 문제도 확인되자 이
런 계획을 보류하고 수차례 개선
공사를 벌였다.

이날 회의에서는 최초 설계가 미
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BRT를 도
입하려다보니 도민 불편이 가중됐
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.

한동수 의원(더불어민주당, 이도

2동을)은 “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
계 기준이 마련된 다음 실시설계가
이뤄졌다면 지금처럼 계획 수정 보
완 작업을 하며 도민 혼란이 가중
되지 않았을 것”이라며 “왜 이렇게
서둘렀는지 의문”이라고 비판했다.

한 의원은 김삼용 국장이 섬식정
류장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다보니
설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
는 취지로 답변하자 “서광로 주민
들은 테스트베드(모의실험대상)
나”고 꼬집었다.

김황국 의원(국민의힘, 용담1·2
동)은 “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
도입에 필요한 예산이 약 1000억
원”이라며 “최근 유력한 도지사 선
거 후보자가 BRT를 원점 재검토
해야 한다고 말했다. 차기 도지사
판단에 따라 정책은 따라가야 하지
않느냐”고 물었다.

김 의원의 발언은 차기 도지사
판단에 따라 교통 정책이 변경될

수 있고 BRT 도입에는 막대한 예
산이 필요한 만큼 동광로 확대 계
획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
풀이된다.

양경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노형
동갑)은 “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
쳐 검증을 해야하는데 서둘러 대한
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려고
하다보니 (문제가 발생해) 오히려
(동광로) 확대 계획은 늦어진 것
아니냐”고 질타했다. 또 양 의원
“BRT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
민 참여기구를 구성한다고 하는데
(서광로 구간 공사가 끝난 마당에)
왜 이걸 이제야 하느냐”며 앞뒤가
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.

반면 송영훈 의원(더불어민주당,
남원읍)은 “초기에는 혼란이 있을
수밖에 없다”며 “도민공감대를 형
성하면서 보완해나가면 정책이 완
성될 것”이라고 민선 8기 도정 정
책에 힘을 실었다. 이상민기자

고등학교서 총기 오발사고… 50대 코치 부상

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
가 발생해 50대 코치가 부상을 입
었다.

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
전날 오후 2시 41분쯤 제주시의
한 고등학교에서 공기권총 점검·수
리 중 총기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
가 접수됐다.

당시 공기권총 내부에 연지탄(납

탄)이 장전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
상태에서 격발하면서 사격부 코치
인 50대 여성 A씨가 옆구리 등에
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.

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
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.

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
를 조사하고 있다.

양유리기자 glassy38@ihalla.com

설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 2단계 발령

제주소방, 전 소방관서 가용 소방력 100% 가동

제주소방안전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
13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전 9
시까지 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
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
11일 밝혔다.

특별경계근무 2단계가 발령되면
서 소방안전본부와 안전체험관, 도
내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전 소방관
서가 가용 소방력의 100%를 가동한
다.

또 전 소방관서장이 지휘선상에
대기해 상황 관리를 직접 총괄한
다. 전통시장과 대형 쇼핑몰 등 화

재 취약 대상에 대한 예방 순찰을
강화한다.

화재 위험이 높은 산야 시간대에
는 소방 순찰 횟수를 평시 대비 2
배 이상 늘려 화재 요인을 사전에
차단한다.

선박 화재 예방을 위해 제주·서
귀포·한림·성산항에 소방력을 집
중 배치한다. 공항과 항만 등 다수
이용객 시설에는 특수구급 순찰을
강화하고 육해공을 아우르는 임체
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.

양유리기자 glassy38@ihalla.com

폭설시 공항 체류객 수송·제설 강화

도, 대설 대응 합동 점검회의
현장 지휘체계 마련·협업 강화
주요 도로 제설·정보 안내 병행

난상황실과 관련 부서에 현장 상
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체류객 수
송, 물품 지원, 안전 관리 등에 대
응한다.

체류객이 발생할 경우 담요·매
트·생수 등을 배부하고, 야간 비상
수송이 필요할 경우 버스 연장 운
행과 택시 유입, 전세버스 투입 등
을 통해 체류객을 분산 수송한다.

도로 제설 대응과 정보 안내도
강화한다.

제주도 전체에 눈이 내릴 경우
공항 주변과 시가지 주요 연결 도
로를 우선 제설하고, 제설차량 관
제 단말기를 활용해 영상·위치 정
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작업 구
간을 관리한다.

또 주요 교차로와 결빙 우려 구
간에는 제설 전담 인력을 집중적으
로 배치하고, 공항 체류객 밀집 시
질서 유지를 위해 자치경찰 인력을
배치한다. 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

현재해수욕장 관광객 11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겨울 바다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. 강희만기자

설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수거 확대

도,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

밝혔다.

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
청소 차량 311대와 음식물류 폐기
물 종량기(RFID) 5809대에 대한
사전 점검을 완료했으며, 연휴 기
간(14~18일)에 쓰레기 수거를 강화

할 예정이다.

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명절 전
날인 16일에는 2회 수거(오전 5시~
오후 3시,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6
시)를 실시해 생활폐기물 증가에
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. 또
한 관련 생활 민원에 신속히 대처
하기 위해 ‘생활쓰레기 처리 종합
상황실’도 운영한다. 오소범기자

현장 상황관리관은 제주도 재

도,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

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급
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
리하기 위해 ‘설 연휴 생활폐기물
처리 종합대책’을 추진한다고 11일

할 예정이다.

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명절 전
날인 16일에는 2회 수거(오전 5시~
오후 3시,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6
시)를 실시해 생활폐기물 증가에
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. 또
한 관련 생활 민원에 신속히 대처
하기 위해 ‘생활쓰레기 처리 종합
상황실’도 운영한다. 오소범기자

현장 상황관리관은 제주도 재

도,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

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급
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
리하기 위해 ‘설 연휴 생활폐기물
처리 종합대책’을 추진한다고 11일

할 예정이다.

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명절 전
날인 16일에는 2회 수거(오전 5시~
오후 3시,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6
시)를 실시해 생활폐기물 증가에
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. 또
한 관련 생활 민원에 신속히 대처
하기 위해 ‘생활쓰레기 처리 종합
상황실’도 운영한다. 오소범기자

현장 상황관리관은 제주도 재

도,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

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급
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
리하기 위해 ‘설 연휴 생활폐기물
처리 종합대책’을 추진한다고 11일

할 예정이다.

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명절 전
날인 16일에는 2회 수거(오전 5시~
오후 3시,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6
시)를 실시해 생활폐기물 증가에
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. 또
한 관련 생활 민원에 신속히 대처
하기 위해 ‘생활쓰레기 처리 종합
상황실’도 운영한다. 오소범기자

현장 상황관리관은 제주도 재

도,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

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급
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
리하기 위해 ‘설 연휴 생활폐기물
처리 종합대책’을 추진한다고 11일

할 예정이다.

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명절 전
날인 16일에는 2회 수거(오전 5시~
오후 3시,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6
시)를 실시해 생활폐기물 증가에
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. 또
한 관련 생활 민원에 신속히 대처
하기 위해 ‘생활쓰레기 처리 종합
상황실’도 운영한다. 오소범기자

현장 상황관리관은 제주도 재

도,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

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급
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
리하기 위해 ‘설 연휴 생활폐기물
처리 종합대책’을 추진한다고 11일

할 예정이다.

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명절 전
날인 16일에는 2회 수거(오전 5시~
오후 3시,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6
시)를 실시해 생활폐기물 증가에
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. 또
한 관련 생활 민원에 신속히 대처
하기 위해 ‘생활쓰레기 처리 종합
상황실’도 운영한다. 오소범기자

현장 상황관리관은 제주도 재

도,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

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급
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
리하기 위해 ‘설 연휴 생활폐기물
처리 종합대책’을 추진한다고 11일

할 예정이다.

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명절 전
날인 16일에는 2회 수거(오전 5시~
오후 3시,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6
시)를 실시해 생활폐기물 증가에
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. 또
한 관련 생활 민원에 신속히 대처
하기 위해 ‘생활쓰레기 처리 종합
상황실’도 운영한다. 오소범기자

현장 상황관리관은 제주도 재

도,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

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급
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
리하기 위해 ‘설 연휴 생활폐기물
처리 종합대책’을 추진한다고 11일

할 예정이다.

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명절 전
날인 16일에는 2회 수거(오전 5시~
오후 3시,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6
시)를 실시해 생활폐기물 증가에
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. 또
한 관련 생활 민원에 신속히 대처
하기 위해 ‘생활쓰레기 처리 종합
상황실’도 운영한다. 오소범기자

현장 상황관리관은 제주도 재

도,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

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급
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
리하기 위해 ‘설 연휴 생활폐기물
처리 종합대책’을 추진한다고 11일

할 예정이다.

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명절 전
날인 16일에는 2회 수거(오전 5시~
오후 3시,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6
시)를 실시해 생활폐기물 증가에
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. 또
한 관련 생활 민원에 신속히 대처
하기 위해 ‘생활쓰레기 처리 종합
상황실’도 운영한다. 오소범기자

현장 상황관리관은 제주도 재

도,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

밝